

## 오지호 〈수련〉 1957

/ 박혜미

오지호의 〈수련〉은 한국 화단에서 ‘빛과 색채의 화가’로 통한 그의 인상주의적 풍경화를 대표한다. 과감한 색 면 표현으로 그린 흰 수련과 녹색 잎이 초여름의 산뜻하고 개운한 느낌을 전한다.

연못에 핀 하얀 수련 세 송이가 돋보인다. 그러나 수련이라는 직접적인 소재보다 빨강, 파랑, 노랑을 포함한 다양한 색 면이 관람객의 시선을 더욱 끌어당긴다. 넓은 붓으로 과감하게 터치한 색 면이 모여 수련의 잎을, 꽃을, 연못을 만든다. 생생하고 싱그러운 빛과 색채 표현이 초여름의 산뜻하고 개운한 느낌을 전한다.

이 작품은 ‘한국의 인상주의 화가’ ‘빛과 색채의 화가’라고 불린 오지호(1905-1982) 화백의 1957년 작 〈수련〉이다. 그는 빛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색채를 유화로 맑고 생생하게 포착했다.

오지호는 1905년 전라남도 동북면 독상리(현재 화순)에서 태어났다. 자연경관이 빼어난 이곳은 어린 그에게 산과 들, 냇물의 아름다운 정취와 자연에 대한 사랑을 깨우쳤다. 그는 9살부터 그림에 두각을 나타냈다. 고향 풍경과 고양이, 조랑말, 사람 얼굴 등을 묘사한 일기 속 그림을 본 어른들은 그의 놀라운 실력에 감탄사를 연발하곤 했다.

오지호는 휘문고등보통학교에서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인 고희동(1886-1965)을 스승으로 만났다. 3학년이 되던 해, 우연히 친구의 집에서 본 한국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인 나혜석(1896-1948)의 유화 작품은 그를 본격적인 그림의 세계로 인도했다. 연필과 수채 물감으로 그린 작품을 주로 접하던 그에게 유화는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오지호는 유화 재료를 구매해 유화 그리는 법을 책으로 독학했

고, 1923년 고려미술회(高麗美術會)에 입학했다.1) 이후 그는 1925년 일본으로 떠나 1926년부터 도쿄미술학교 서양화과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일본에서 외국의 자연을 처음으로 접한 그는 한국 산천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그대로 담기 위해서는 인상주의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이후 한국의 자연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상주의 화풍을 작품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1930년 서양화 단체 녹향회(綠鄉會)2)에 참가하며, ‘조선의 그림’을 표방한 인상주의적 유화 작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자연은 그의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는데, 그는 흙과 초목이 자신의 ‘육체의 일부’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5월의 자연, 그것은 초목의 세상이다. 신선하고 명랑한 이 때의 듣는 듯한 초목의 녹색들, 그토록이나 밝으면서도 그것은 눈부시지 않다. 그토록이나 청초하면서도 그것은 쌀쌀하지 않다. 그렇게도 싱싱하면서도 그것은 또 부드럽기 짝이 없다. ... 남쪽 산촌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난 나에게 흙과 초목은 바로 내 육체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이다.”3)

녹향회의 동인으로 함께 활동했던 김주경과 함께 1938년 발간한 『오지호·김주경 2인 화집』은 한국 근대미술사에 한 획을 그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화집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을 뿐 아니라 총원색으로 인쇄된 컬러 화집은 전무한 것이었다. 화가이자 평론가로 활동한 구본웅은 이 화집을 두고, “2인 화집 출판은 우리 화단의 의외의 일이자 쾌사다. ... 이 출판이 화집으로서 처음일뿐 아니라 그 호화로운 점에서도 단연 출판의 경이적 처사”4)라고 격찬하였다. 화집 출간 이후 그는 미술계에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다.

갤러리현대 박명자 회장은 ‘오지호 화백은 작품값을 내려서 팔자고 제안한 첫 화가’라고 회고한다. 오지호는 독자적인 색채 표현과 기법으로 이미 화단에 널리 알려졌지만, 좀처럼 개인전을 열지 않아 그의 작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다. 때문에 1973년 현대화랑(현 갤러리현대)에서 열린 그의 개인전은 큰 성황을 이뤘다. 이 전시에는 그를 대표하는 인상주의적 풍경화를 포함해 총 33점이 전시되었다. 전시 개막 첫날 모든 작품을 판매한 그는 그 수익금을 모두 한문 교육 운동을 위한 책을 출판하는 일에 썼다고 한다. 그가 화가로서 한국의 자연을 화폭에 담는 일뿐 아니라, 학자로서 한문 교육에 얼마나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평생을 두고 그가 추구했던 예술은, 자신의 말을 빈다면, 회화의 생리에서 나온 회화, 회화의 생리에 가장 알맞은 회화, 회화라면 반드시 그렇게 있어야 하는 가장 자연스런 모습, 언제 보아도 좋은 그림, 만인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림, 이 회화의 영원한 자태라고 했다. 이 영원한 자태란 광명의 회화를 이름이다. 오지호의 생애는 무지와 금욕으로 파괴되고 소실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고귀한 전통문화의 보존과 한자 교육의 부활, 그리고 광명

을 창조하는 작업으로 일관되었다.”5)

1) 고려미술원은 평양의 소송연구소와 함께 한국에서 서양화를 지도한 최초의 교육기관이다. 강사였던 이종우(1899-1981)와 김은호(1892-1979)가 해외로 떠나면서 고려미술원은 문을 닫지만, 이러한 기관의 활동은 한국에 서양화단의 뿌리가 조금씩 내리는 데에 발판이 되었다.

2) “양화계(洋畵界) 형성기의 미술그룹으로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박광진(朴廣鎭)·김주경(金周經)과 서울에서 독학한 심영섭(沈英燮), 장석표(張錫豹)가 발기회원으로 참여하였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3003>

3) 오지호, 「오월송」, 『동아일보』, 1939

4) 구본웅, 「오지호·김주경 2인 화집 출판을 기함」, 『조선문학 신춘특집 제5회』, 1939

5) 손정연, 「오지호의 예술과 생애」, 『오지호작품집』, 전남매일신문사, 1978. 최예태, 『오지호 그 예술의 발자취』, 프레지던트사, 1987에서 재인용.